

피터 뢰스홀트 한센 주한 덴마크 대사 귀하

한국-덴마크 양국의 우호적 관계 교류를 위해 힘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에 등록된 비정부 비영리 민단단체로써 23만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학대 예방과 입법 협력, 동물 구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농장동물 복지 증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며, 작년에는 돌고래 해방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거두어 3마리의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덴마크에서 동물 매춘이 존재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접한 한국 내 동물단체와 동물 보호론자들은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염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덴마크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인권과 마찬가지로 동물권과 동물복지 역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공유되어야 할 가치임에 근거해, 동물 매춘에 대한 우리의 뜻을 덴마크 정부에 전하는 것을 당신들이 기꺼이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동물학대 예방과 개고기 금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이외의 국가들이 한국 내 동물 학대 문제 해결을 공동의 가치로 공유하는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동물권은 특정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동물권과 동물복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 지역에서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온 행위들에 대해 묵과하고 지나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극히 일부분에서 행해지는 관습적 행위를 법으로 통제할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개입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동물에 대한 가혹 행위가 동물 학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동물학대도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동물 매춘은 관습도 아니거니와 그 행위는 도의적·동물권적 측면에서 명백하게 금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덴마크 정부가 덴마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매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발생해 온 불행한 일들을 앞으로는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덴마크의 축산 기술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복지에 준한 도축시스템이 덴마크로부터 도입되는 등, 덴마크의 축산 정책은 동물복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물자유연대는 “종교적 자유보다 동물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명분 아래 할랄(halal)과 코셔(Kosher)를 위해 살아있는 상태로 동물을 도축하는 방식을 금지시킨 덴마크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덴마크가 지금까지 동물 복지를 위해 훌륭한 노력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선진적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같은 우리의 요청에 대한 덴마크 정부의 의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사)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 희 경

